# 달라이라마 "어려움, 또 다른 기회"

## 한국 불자 특별법회 8월 18일 유튜브로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라를 잃고 망명 중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움이란 상황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이를 더욱 가치있게 활용해갑시다."

세계인들의 영적지도자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가 8월 18일 한국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열고, 한국에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들며 극복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8월 18일 공식유튜브채널을 통해 '자비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국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대중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온라인 법회는 삼학사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자리한 인도 다람살라 현지서 진행, 14개국에 동시통역돼 소개됐다.

법문 화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였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중이다. 인도 현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출입 조차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저는 나라를 잃고 망명을 했지만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려움과 시련을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했다"며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여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정진했고, 사람들에게도 마침내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오늘날 이런 위기 상황은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더욱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주변의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매일 일어나자 마자 보리심을 사유하고, 보리심을 닦으려 노력하고 있다. 보리심은 자타를 모두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에 가까워지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 조차도 나의 스승처럼 여기게 된다.

**'자비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국 불자 온라인서 만나**
**망명아픔 수행 전환 밝혀**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오히려 나의 스승과 같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자들을 위한 법회기에 달라이라마는 기도와 예불, 선정에 드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대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수행의 동기는 자비심이어야 한다. 자비심은 부처의 씨앗이며 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달라이라마는 한국인들에게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며 웃었다. 현재 달라이라마방한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첨예한 중국 입장 등으로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불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달라이라마 공식채널 갈무리

### 달라이라마와의 즉문즉답

Q. 우리시대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요?

A. 불교적 관점에서 생하면 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등은 소멸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위급한 상황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나섭시다.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잘 활용키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Q.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죽음이 닥쳤을 때 미세한 의식을 활용한 수행이 있습니다. 툭담입니다. 죽음에 임박하면 우리 몸을 유지하던 지수화풍이 무너집니다. 그 임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생전 수행한 공성에 대한 깊은 삼매에 듭시다.

Q. 요즘 자식학대 등이 늘고 있습니다.

A. 〈입보리행론〉을 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 사랑과 배려, 자비 등을 느끼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Q. 화난 감정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A. 〈입보리행론〉을 보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자비심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 보고 생각하며 마음 속에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칩니다

A.전염병으로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술들을 활용해 서로 더 잘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포교사단, 내년 5월 온라인 강의 진행

## 포교사단 8월 10일 언택트 운영회의 결과

**온라인으로 주요회의 진행**
**교육시스템 구축 의견모아**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8월 10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 등의 의견을 모았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운영위원회의에는 방창덕 단장을 비롯해 김영석 수석부단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방창덕 단장은 "해를 거듭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창궐과 찜통더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 중인 단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응원도 함께 보낸다"며 "코로나 상황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필요 예산은 초기 장비구입 및 시스템 설치비 2740만 원과 서버관리비 등 연간 운영비 1554만 원으로 2022년 5월 1일 정식 가동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본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부산지역단 700권, 강원지역단 320권 등 동참과 함께 디지털불교대학에서 54강좌(강사 혜장, 운성, 동명, 금강 스님)를 준비하고 포교사 팀별로 수행방안도 마련하는 것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종교편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제12대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다. 포교사단 선관위는 8월 24일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세부 일정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은 8월 10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결의했다.

#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가을학기 개강

## 입문 · 심화 · 전문 등 개설… 30세 미만 무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 생활참선 가을학기를 개설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튜브 생활참선 채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하반기 입문코스 14기, 심화코스 12기, 전문코스 8기, 지도자코스 3기 과정을 진행한다.

초심자를 위한 생활참선 입문코스는 8월 31일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비대면 수업 중 해인총림 해인사 백련암에서 증명법사 원택 스님을 만나 참선에 입문하는 대면수업도 포함되어 있다.

심화코스는 1년 6개월의 과정으로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가 〈신심명〉과 〈증도가〉 〈돈오입도요문론〉을 강의한다. 또 구산선문 중 실상산문 실상사와 백장암, 벽송사 등을 순례한다.

2년제 참선 전문가 과정인 전문코스는 9월 2일 개강한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유마경〉을, 박희승 교수가 〈간화선〉을 교육하며 실참수행을 병행한다. 지도자코스는 9월3일 개강해 〈선요〉와 성철스님 화두참선법을 논강식으로 공부하며, 충주 석종사에서 수련하고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한편, 청년포교 취지에서 만 30세 이하 청년 불자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노덕현 기자

# '붓다나라' 초기불교 가을 강좌 연다

##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4강

**이중표대표가 직접 강의나서**
**'정선 쌍윳따니까야' 교재로**
**유튜브 붓다나라TV서 중계**

붓다나라 깊은공부도량(이중표 대표, 전남대 명예교수)이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2021년 가을학기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는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이며 '정선 쌍윳따니까야'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수강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유튜브(붓다나라 TV)로 중계되는 실시간 강의와 줌(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병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매주 국내 각 지부를 돌며 유튜브(붓다나라 TV)로 중계하는 현장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불교 전문가인 이중표 대표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현대와 불교사상〉,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역서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등이 있다.

현장 강의 장소 및 문의처는 붓다나라 서울지부(강남구 역삼동 662-13, 010-6374-6396), 붓다나라 광주지부(동구 예술길 31-9, 010-4783-6637), 붓다나라 부산지부(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8, 11층, 010-5155-9511), 붓다나라 대구지부(동구 동대구로 503 투에버 1층, 010-2367-5918), 붓다나라 미주지부(+1 707 400 5588)다.

참가비용은 18만 원으로 미주지부는 미화 150달러다. 가족은 1명만 수납하면 되며 참가 희망자는 각 지부별로 수강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붓다나라 홈페이지(buddhanara.or.kr)에서 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